

# 韓國住宅과 住居生活

## (Ⅲ)

張 起 仁  
(三成建築研究所)

### 11. 주택과 살림살이

한가족 단위의 살림살이는 국가사회제도와 민족생활풍습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변천되어왔다. 또 이민족 타국과의 교류로 크게 영향을 받는 일도 있었다. 한국고유의 생활체제에서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크게 국위를 떨치면서 그 자체가 풍부한 문화와 생업을 지녀 주변 이민족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때도 있었으나 때로는 이민족의 지배하에 생활풍습이 꺾이고 기울기도 하였다. 멀리 고구려의 만주일대에 국위를 뽐내던 빛나는 생활도 있었으나 고려의 몽고난, 이조의 임진난, 구한말의 국운은 드디어 민족말살의 극한까지 이르렀다가 해방이 된것을 생각하면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하여 즐기면서 이민족에 부러움없는 문화생활로 지켜 나가야 할 때이다.

한가정의 아들이 성가하여 세간나면 또한 가정을 이룬다. 이 가정은 핵가족으로서 아들딸 낳고 아들이 성장하여 형제자매시절을 보내고 성가 또는 출가하여 다른 핵가족을 이루나 한국풍속 제도로서는 장손은 종가(宗家)를 계승하여 조부모, 부모 모시고 살며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으뜸이라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장손과 차남 삼남의 생활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부모나 조상을 추앙하는 인식은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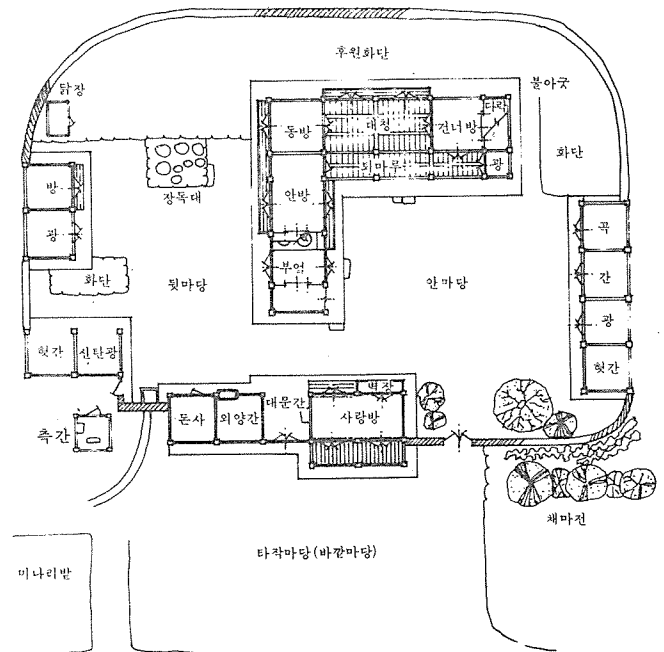
생활에서 가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생업(生業)이다. 생업없이는 생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인데 옛사회를 도리켜보면 세습적 인간계급도 생겨났지만 이때도 서민계층은 생산력을 다하여 삶을 도모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 선비나 글공부하던 이들은 공무원 즉 벼슬아치가 되는 길만이 직업이고 여타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계급은 봉건사회의 제도라지만 오늘날의 사회제도나, 가치인식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직업의 귀천이다. 천민(賤民)이 영위하던 예속적인 생활을 제외하면 서민은 농상공인(農商工人)으로서 충실하게 그 직책을 다하여 가정을 지켜 왔다.

### 12. 농가(農家)

농가 즉 농촌주택은 농사(農事)를 주업으로 하는 살림집이지만 여기에는 일년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루의 생활이 파악되고 가족이 일하고 쉬는때 쓰이는 모든여건

이 갖추어 져야 한다. 근래 농어촌 주택이라 하여 펍 고 급화 되고 개량된바 있으나 균일한 표준주택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주로 벼농사를 짓는 것이 농가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면서도 삼(麻)·목화(木花) 소채·담배·인삼·누에 기타 각종 부업적이기는 하지만 무시될 수 없는 일들이 계절적으로 연속되는 것을 고려에 넣어 설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홀히 다루어 지는 점이다. 이들을 가꾸기 위한 시설과 이들을 처리 수 장하는 공간도 마련 되어야 한다. 이들을 가꾸는 연모·기구등을 수장하거나 수용하는 헛간·처리장·보관창고등 이 필요하다.

간단한 농기구들은 마루 밑에 두고, 길고 일년에 한두번 쓰이는 보습·가래 멍석등은 헛간·창고가 없으면 처마밑에 매달거나 시렁대위에 얹어 놓기도 한다. 헛간은 임시적이 아닌 것이지만 돈 안들이고 우설을 막는 지붕을 덮고 측면과 후면정도만 벽을 쳐서 손쉽게 꾸미기도 한다. 간단히 네기둥 파세우고 보·마루도리걸어 서까래만 걸 치면 발여어 산자대신에 깔고 위에 이영 퍼갈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농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경기 남한산성내 부락민가

다음 그림 1은 경기도 남한산성내 부락민가의 평면도이

다. 비록 소주택이기는 하지만 전면에 퇴가 달린 2칸대 청마루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뒤에는 동방(洞房)이라하여 뒷방(여아의 독립방으로 쓰임)이 달리고 서측에는 좁은 퇴마루를 달아 부엌일터인 뒷마당 즉 생활의 썬서비스야드(service yards)에 직결하여 여인들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건넌방 옆에는 반간 퇴를 달아 위는 다락벽장으로 쓰고 밑은 함실불아궁으로 처리하고 전면 반칸퇴는 작은 광으로 간단한 세간이나 중요한 곡물을 간직하는 곳이 된다.

안방은 할머니와 주부의 거실로 쓰이며 건넌방은 아들, 며느리의 거처실로 사랑방은 할아버지 또는 주인 어른의 생활실로 쓰인다.

사랑채는 대문간과 외양간(喂養間)과 돼지울(豚舍)을 두고 남쪽경계를 이룬다. 동측에는 중요한 창고인 곡간(穀間) 창고, 헛간을 꾸몄다. 서남측에는 불뿔감을 수장하는 신탄광과 잡기구를 수장하는 헛간인 두칸집을 짓고 또 떨어져서 두칸의 방과 광을 지었다. 방은 식구가 늘기 때문에 부엌에서 쓰던 광 두칸을 개조하여 방을 드렸을는 지도 모른다. 그 뒷쪽 아늑한 곳에 닭장을 두었으며 돈사열 배수로(돌창)가 있는 곳에 측간을 두고 그 옆은 퇴비 기타를 두는 자리로 쓰고 있다.

안마당의 남쪽 일각대문안에는 감나무 한두그루가 봄 가을 관상수가 되고 후원 뒷마당과 건넌방옆에는 화단을 꾸며 화초를 가꾸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한다. 특히 후원 화단은二段 또는 三단으로 구성하여 맨밑에는 초본화(주로 일년생 또는 다년생) 제2 단에는 관목 관상수 또는 앵도 기타 낮은 과실수를 심고 최상단에는 감나무, 배나무 등 키 큰 과실수를 심어 방풍벽(防風壁)이 되게 하고 그 뒤로는 소나무, 대나무 숲으로 가리게 된다.

사랑 앞마당은 봄 가을 농사일의 준비와 거둬들인 곡식의 타작에 쓰이며 절기에 따라 각종 작업터로 쓰인다. 바깥마당 좌편 낮은곳에는 미나리밭, 우편에는 남새밭(菜麻田)으로 기타 적당한 곳에는 뽕나무를 심어 봄 여름 누에가꾸는 일도 농가의 한 일이다.

농가에서도 대사날 잔치날도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대청마루가 주실되어 잔치상을 벌이며 청상(廳上)에 오르는 이들은 가까운 친척·친지들이고 여타는 안마당에 멍석·자리 깔고 위에 차일(遮日)를 쳐서 햇볕을 가린다.

뒷마당에는 마을 아낙네들의 광장이 되고, 사랑방에는 주인과 가까운 친척, 친지 또는 동네 웃어른들의 연회장이 되며 그 앞 바깥마당은 동네노소들의 즐기는 광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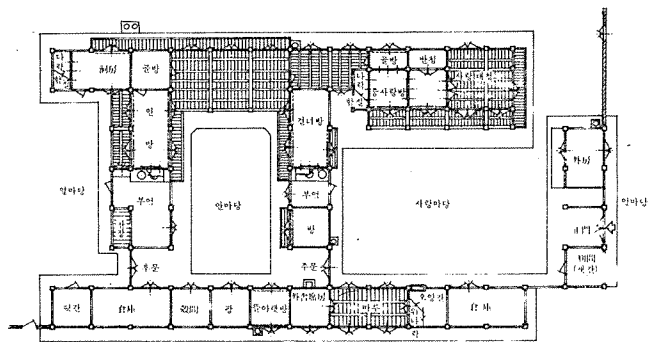
이 평면에서 부족한 것을 들면 사랑방에 부엌이 있어 쇠죽을 끓일수 있어야 하고 방앗간이 있음직 하다. 우물은 뒷마당 구석에 없는 것을 보니 가까운 거리에 따로 있는 모양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작물의 종류도 다르고 쌀 이외의 작물이 큰 위치가 되기도 한다. 강원도, 평안도의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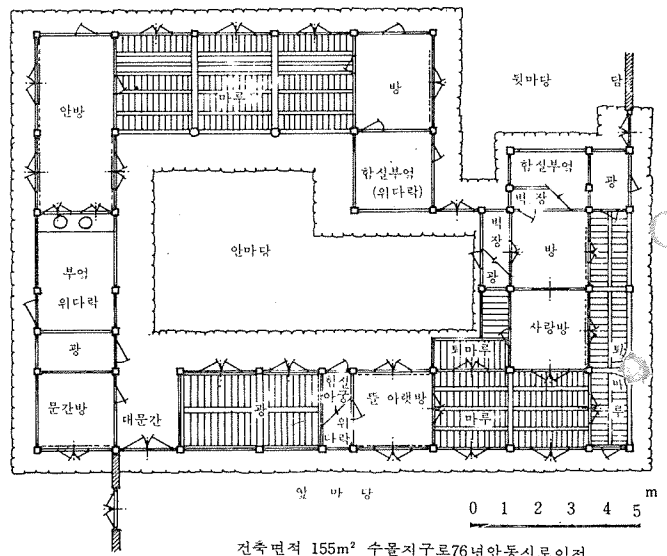
콩, 감자등의 재배와 그 수장고가 다르며, 충청도 이외에 많은 지방에서 담배, 인삼, 삼(麻), 모시(苧) 등의 재배도 수장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주택의 구성은 일반농가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수년전에 실시한 대학의 농어촌주택 설계안 연구과제에서 그 지방의 고유한 민가를 조사하고 아울러 농기구 세간등을 기록하여 그 자료를 삼을 것을 권장한 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충청도에서 부엌한구석에 반드시 뿔감을 수장하는 간을 막아 두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은 개량주택에서도 구공탄 저장고로 본받아야 할 일이다.

### 13. 부농가(富農家)

그림 2·3은 농가로서는 부유한 상류층의 주택으로서 바깥사랑과 중사랑방이 있으며 뜰아랫방, 안방옆 동방, 문간채의 바깥방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식구의 주택의 한예이다. 아마도 시골 사대부집으로서 바깥손님(食客)도 끊이지 않고 3·4인은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림 2)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정용채씨택



건축면적 155m<sup>2</sup> 수물지구로76년안동시로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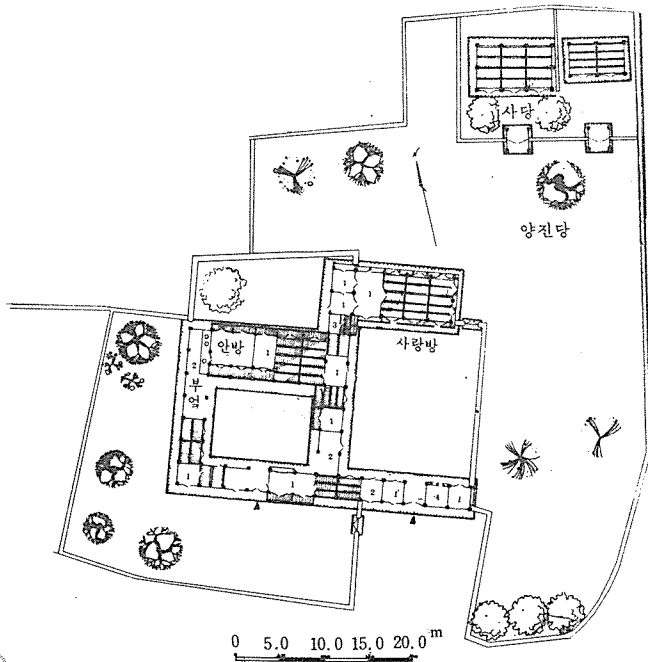
(그림 3) 경북 안동군 예안면 선재동 이골씨렸평면도

이 평면에서는 대식구 살림에 적합하도록 거처(居處)하는 방을 여럿두고 있으며 남녀구별이 엄격히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앞마당과 사랑마당까지는 주로 남자의 광장이고, 안마당과 옆마당 그리고 뒷뜰(後庭)은 대개, 여

자의 생활공간으로 적합하다. 옆마당앞 헛간옆에 일각대 문은 여인들이 상시출입하는 곳으로 동편 정문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허물없이 출입할 수 있다. 아마도 필요하여 개조한다면 헛간옆에 한두칸 달아지어 안대문간을 두고 싶은 평면이다.

안방뒤에는 주부전용의 골방이 달리고 그 옆에 동방은 과년한 규수의 거처실로 쓰이고 옆마당은 부엌살림에 쓰이는 잡다한 세간(맷돌·절구통·장독대·떡판)들이 놓이고 가능하면 우물과 수채통도 설비하였을 것으로 본다. 건너방이 안방과 정면으로 마주선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건너방은 한칸 뒤로물리고 별당 사랑방으로 통하는 반칸복도로 연락되게 하였으면 안방과 건너방 그리고 사랑방의 독립성이 보다 강조 되었을 것이다.

안마당에는 아이방으로 쓰일 뜰아랫방과 건너방부엌앞에 방이 달려 있다. 정문간 옆의 바깥방(外房)은 하인이나 머슴이 기거하는 방으로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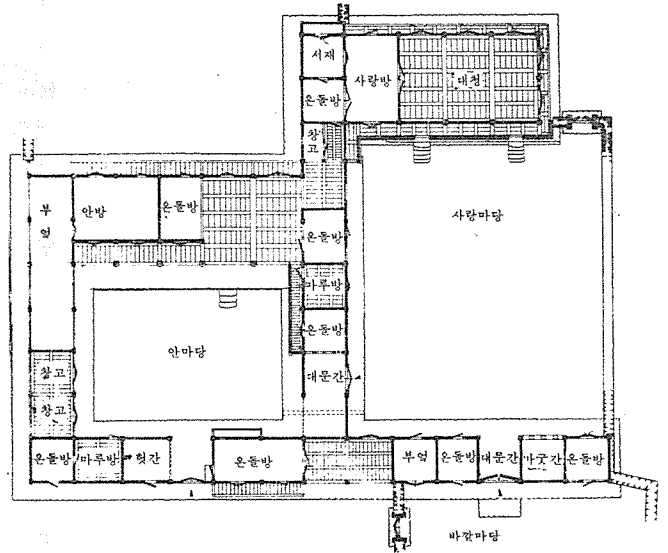
(그림 4.1) 양진당 배치도 (보물 제36호)

바깥사랑방은 단칸이지만 대청마루는 두칸으로 할아버지의 거처실로서 마을 어른들의 응접실로도 쓰인다. 중 사랑방은 이백의 주인이 기거하는 방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실이다. 이 자리는 또 성장하는 도련님들의 글 공부방이 되기도 하며 시절에 따라서는 서당방으로 임시 변통하여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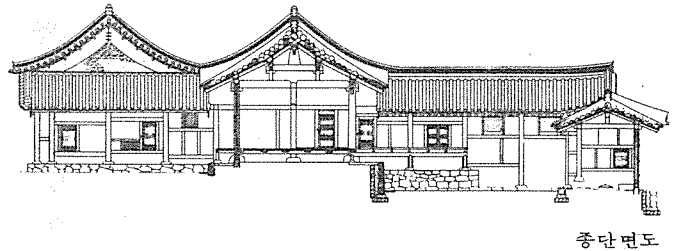
정문옆에 화장실인 측간(廁間)은 온돌에 맨 채를 두는 곳으로도 이용된다. 따라서 옆마당 앞 헛간도 필요에 따라 안변소(內廁間)로 쓰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평면으로서 경북 안동 하회마을 유씨종가(柳氏宗家) 양진당(養眞堂)이 있다. 이것은 보물제36호로 지정된 가옥으로 지방 명문의 대 저택인 것이다.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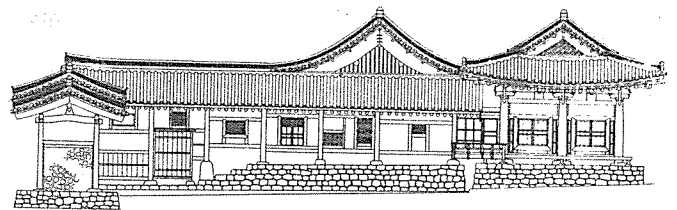
채에서 이어나온 행랑채의 바닥(기단)이 낮아지는데 여기 창고는 위에 다락을 매어 서고(書庫)로 쓰고 있다. 또 동북쪽 높은 대지에 고요하게 사당(祠堂)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4.~4.3 참조)



(그림 4.2) 양진당 평면도 (경북안동하회마을)



중단면도



동측입면도

(그림 4.3) 양진당 입면

그림 3은 민가평면의 경북지방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자형 평면이 아닌 변형을 보인것이다. 이 평면에서는 온돌방에 함실부엌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헛간이나 광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평면에서는 대문간이 안마당을 훤히 들여다보여 부엌과 작은방 사이에 차면벽(遮面壁)이라도 있어야 좋겠다. (점선부분) 헛간·광·외양간·측간등은 별채로 구성되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 14. 도시 소주택

도시 서민주택은 비교적 단출한 가족구성으로서 세간난 주인내외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거나 성가하였더라도 단출한 가족구성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종류 이상이 되면 가족수도 늘고 사업·지위·기타 여건에 따

라 큰집에 살게된다. 이 때는 그 내용은 부농가의 저택과 다를바 없으나 농사의 부업일에 쓰이는 여러방(헛간·외양간·돈사등)은 필요가 없으며 사업상의 제실(諸室) 수납창고, 제품창고, 처리장등이 요구된다. 다만, 생산관계업에 있어서는 가공장, 처리장은 별도로 마련되니까주택에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관하는 창고, 점방등이 요구된다.

그림 5는 전형적인 중부도시 서민주택으로서 3칸 대청마루 좌우에 안방과 건너방을 두고, 안방에 남면하여 부엌 1칸 다음에 찬방 1칸 또는 반칸을 두고 있다. 그 남쪽에 뜰아랫방을 두고 또 2칸정도의 사랑방을 두되 바깥에서 출입할 수 있으며 대문간과 안마당으로도 통하게 한다.

대문간 옆에는 문간방을 두고 그 옆에 여유가 있으면 광이나 뜰아랫방을 꾸미며 그 한 옆에 측간을 마련한다.

대청은 보가 1칸반통이고 회침에는 기둥을 세울 때도 있으나 오래전에는 별로 회침구석기둥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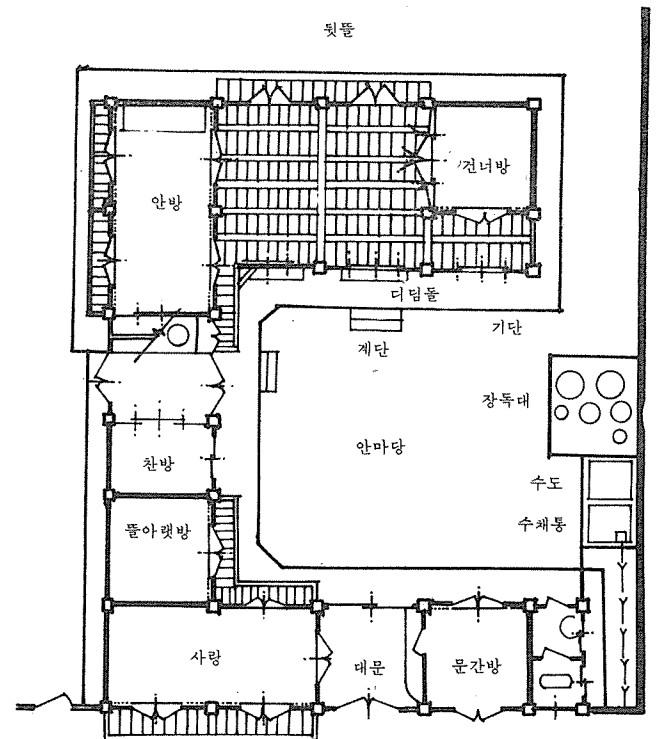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듯이 안방앞에는 대청마루에 붙여 좁은 퇴마루를 두고 창을 내었으며 대청마루에는 분합문을 달지 아니하거나 달더라도 퇴안쪽에 달았다. 안방에는 뒤에 창문을 내고 안방에서 부엌 옆마당으로 출입할 수도 있어 여기에도 좁은퇴를 달았다. 그림에서 대청마루 앞에 미서기 분합문을 달은것은 비교적 근세에 유리가 수입된 후라고 보아야 할것 같다. 대청 뒷면에도 머름중방으로 장식된 흙대 또는 문지방을 대고 창문을 내었다. 이것은 보통 판문으로 하고 앞에 분합문을 달지 않더라도 뒷문만은 내고 문짝도 달았다. 이 창문으로 그늘진 뒷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대청마루에 돛자리 곱게 깔고 가족이 모여 앉아 담소하거나 아낙네들이 한잠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대청 여모중방(분합문지방) 앞에는 디딤돌(步石)을 놓아 높은 마루를 오르내리게 하였고, 지땃돌이 두벌 이상일때는 계단디딤돌 한두단을 놓고 오르내리게 한다.

건너방 앞에는 내청마루보다 한층높게 누마루(樓柵樓)을 놓고 대청퇴에서 오르내리게 한두단의 계단턱을 두었다. 이 누마루는 반칸넓이 정도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보통 소 주택에서도 볼수 있었으나, 후에 대청과 퇴마루 앞에 미서기 분합문을 달기 시작할 때부터 불편하여 누마루법은 사라졌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시골중학교에서 3년중간에 서울학교로 편입하면서 하숙한 친척집이 가회동 79번지쯤에 있었는데 초가였다. 건너방앞에 누마루가 있고 대청은 1칸이며 부엌다음 뜰아랫방에 하숙한것이다. 이와같이 초라한 초가일망정 사는 멋을 꾸민 것이다.

부엌바닥은 기단보다 깊었고, 부엌출입문의 문턱도 높아 부엌안에 디딤돌 한두단을 두었다. 이것은 부뚜막위가 온돌방의 바닥면과 같은 높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조선조 시절의 주부는 고부간의 문제도 남정네의 비행도 이겨내고 또 곤란한 부업출입도 잘 이겨냈다고 이제는 감탄할 따름이다.

부엌바닥이 낮아지므로 위는 다락을 꾸며 잡다한 세간을 넣어 둔다. 다락앞에는 년출창을 두어 대사시에는 반찬등을 이곳에서 접시에 담아 찬방의 상에 올려 놓아 오는사람마다 대접하였다. 그래서 과방(果房) 이라고도다. 찬방은 약간 높은 마루를 놓았다. 그 밑에는 향아리 장작등을 넣어두는 곳이다. 또 부엌앞 안방에 연달아 불장(불여꾸민 찬장)을 꾸며 간단한 조리품을 넣어두어 안방·대청에서나 부엌에서도 내쓰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그림 5) 도시 소주택

뜰아랫방은 아이들 방이고 문간방은 서생이나 심부름 아이방으로 쓰인다.

그림 양진당 또 이 마을에 이웃하여 있는 충효당 건물의 부엌다락 앞에는 좁은 퇴를 위에 달아내었다. 이것은 대사때에 요긴하게 쓰였다고 할머니의 말씀도 새롭게 기억이 된다.

### 15. 도시 대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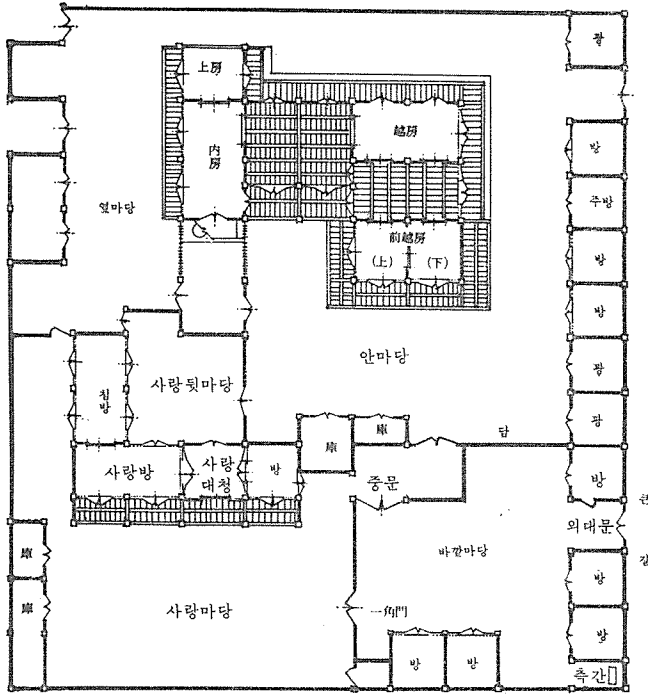
다음 그림 6은 서울 무교동에 근년까지 있었던 신씨가(辛氏家)이나 지금은 퇴락하여 헐렸다. 이 저택의 평면은 특이하게 건너방앞에 마루가 있고 그 앞에 앞건너방이 있는 점이다. 필자가 본 기억으로는 앞건너방 주위에는 퇴마루를 두고 난간도 둘렀으나 높은 마루로 꾸며진 것으로 기억한다.

사랑방뒤에는 침방을 두어 주인이 취침하기에 좋고 사랑방은 응접실로 쓰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큰길가에는 행

랑채에 여러방과 광등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물품의 저장에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 평면에서 또 하나의 특색은 바깥마당·사랑마당·안마당·사랑뒷마당·옆마당·뒷마당이 모두 분리된 상태로 각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106년전 건축부연없고 소로수장)



(그림 6) 서울 중로구 武橋洞 辛氏家

## 16. 각방의 생활

한국주택의 주거생활을 살펴보면 주택의 규모·지역·형태가 다르더라도 일맥공통되는 점이 많다. 중부지방에서는 마루방이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나 가족전체의 생활실은 안방이다. 어느 지역 규모·형식을 따질것 없이 안채안방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주거생활실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청은 안방이용이 될 좋은 여름한철 또는 큰일등이 있을때에 요긴하게 쓰이며 일반서민주택에서 대청이 없을때에는 안방 아래 옷칸이 기본 생활실이 되는 것이다.

### 16·1 안방

안방(内房·内室)은 한주택에서는 비교적 면적을 크게 잡음으로 지방에 따라서는 큰방(大房)이라 하며 또 아래윗칸이 장지문등으로 구분되니 아랫방(下房) 또는 아랫칸(下間), 옷방(上房) 또는 윗칸(上間)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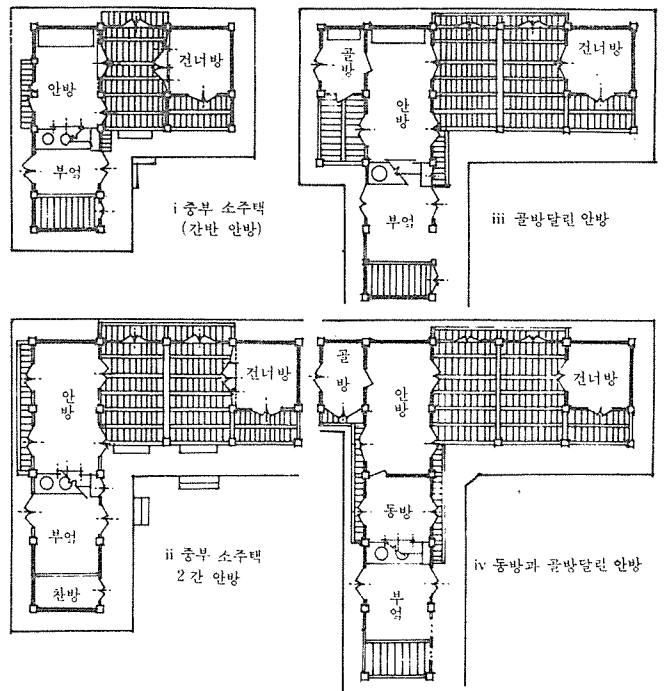
안방은 대개 부엌에 접속되고 또 대청마루 또는 방에 접속된다.

안방에 예속되는 골방(谷房)·동방(洞房)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마루방과 반대편에 작은마루방 또는 퇴가 붙기도 한다.

안방에는 처마밑에 벽장을 두는 일은 거의없다. 이것

은 대개 부엌위 다락방이 있어 허드렛 세간을 둘 수 있고 또 장농등을 놓는 자리가 옷목 벽쪽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7의 i ii는 1.5칸 안방과 2칸안방에 1칸 부엌과 1칸대청이 붙거나, 3칸대청 1.5칸 부엌 및 찬방이 붙는 예이다. iii은 골방과 마루가 붙은 예이고 이 골방은 안방주부의 전용사실로서 부인용 세간을 준비하게 차려 놓는다. 또 퇴마루는 부엌일의 써비스 다용도실로 쓰이며 빨래 만지기, 반찬준비등 일상생활의 주부일이 여기서 주로 이루어진다. 도시에서는 대지가 협소하여 부엌 뒷마당을 둘수 없기 때문에 골방도 퇴마루도 없어지게 되었다. iv는 안방에 동방(洞房)을 둔것이지만 안방과 부엌사이에 두지 아니하고, 안방뒤로 달아 대청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게한것도 있다.

안방에는 이불장·옷장을 비롯하여 경대, 빗고비, 옷걸이 횃대등을 설비한다. 횃대를 들자리가 마땅치 아니하면 가리개 또는 옷걸이틀을 가리개(병풍식)로 꾸며 놓기도 한다. 경대나 고비는 안방 아랫목 대청마루를 향하여 두거나 골방이 있을 때에는 그곳에 둔다.



(그림 7) 안방과 부엌·대청

안방에는 대청과 반대편에 창문을 두는 것이 보통이나, 부엌 뒷마당이 없을 때에는 들창이라도 내어 안방의 채광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안방의 남쪽에 부엌이 붙음으로 채광이 잘 안되기 때문이며 또 여름·통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16·2 대청

대청(大廳)은 바닥에 마루를 깔은 넓은 방으로서 영어의 홀(hall)에 해당한다. 크기는 관아(官衙)·공해(公廩)의 큰방을, 작게는 주택의 현관(문간) 안 마루를 이르

기도 한다. 대청은 큰 마루방 또는 마루방이라 하며 단칸 대청에서 6 칸대청까지가 주택에 쓰인다. 먼저 기술한바 있지만 두칸대청 전면에 반칸퇴를두어 3 칸대청으로 될때도 있으나 대청의 분합문은 원래 퇴안쪽에 달던것이 후세에 퇴 바깥쪽에 달게 되었다.

대청의 건너방쪽 뒷쪽에는 쌀뒤주를 놓고, 안방쪽에는 일상용품을 두는 찬장 또는 장식장을 놓는다. 쌀뒤주위는 조선조백자단지·항아리등을 곱게 쌓아 올렸다. 이 항아리에는 고급식품이나 귀중한씨앗을 넣어두기도한다. 그러기에 속담에「죽더라도 씨앗항아리는 안고 죽어라」하는말이 있듯이 씨앗을 담은 항아리는 소중하기이름데 없고 후일을 도모하라는 깨우치는 말이기도 하다.

대청 앞에는 대청분합문(分閤門)을 열어올려 거러매는 달쇠(吊鐵)를 매달고 또 노인들이 높은마루에 오르내릴때 안전하도록 붙잡는 끈도 매단다. 또 보와보 또는 중간 대들보에 시렁가래 두개를 가로질러 그 위에 돛자리 평풍등 가끔 쓰이는 세간을 올려 놓아두기로 한다.

대청분합문은 달지 아니할 때도 있으나 뒷벽에는 반드시 머름중방위에 널문을 달았다. 마루밑은 비이게 하되 앞에는 디딤돌, 뒤는 고막이 쌓기로 막아 디딤돌과 주춧돌 사이 또는 뒤 고막이에는 통풍구멍을 두어 마루밑 통풍을 잘하여 목재부식을 방지하였다. 마루밑은 또 농기구 기타 잡다한 물건을 임시 넣어두는 곳으로도 쓰인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반자 또는 제고물 반자라고하는 서까래가 내보이게 치장한다. 여기에 우물반자 합판반자등을 하는 일은 근래에 와서부터이다.

### 16·3 부엌과 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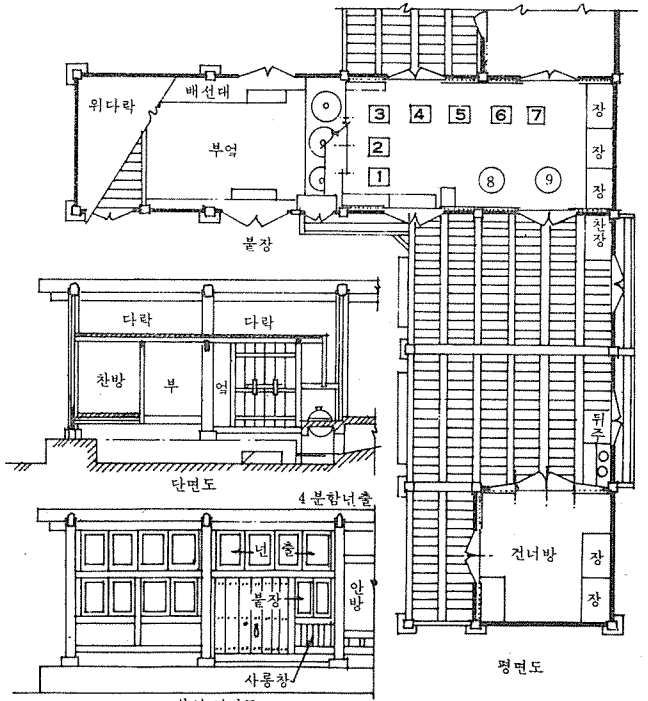
부엌은 소주택에서는 1 칸 또는 1 칸반정도로 하지만 종류이상이면 2 칸이상 4·5 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반칸 또는 1 칸이상의 찬방(饌房)이 달린다. 찬방은 찬간(饌間)·찬마루라고도 하며 부엌에 달린것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을 두지만 큰집(大家)에서는 찬광(饌庫)을 따로 두기도 한다. 이 찬광을 제주도에서는 건너방 뒤에 두는 것이 보통이며 고평(庫房의 변음인듯 함)한다. 경기도의 한 예를 보면 안방위에 달린 골방 또는 동방을 찬방으로 하는 주택도 있다.

부엌바닥은 부뚜막 불아궁 때문에 온돌바닥면보다 60cm, 대가에서는 90cm 정도 낮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온돌바닥과 기단(지대·지단)바닥의 높이 차가 40cm 정도라면 부엌과 기단바닥의 높이차는 30cm 이상이 될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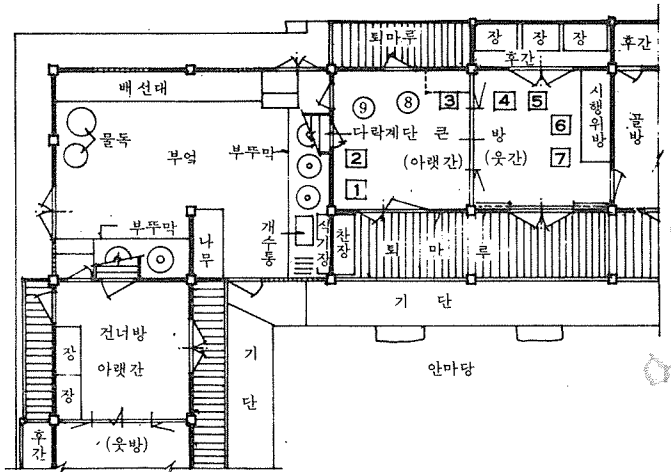
부뚜막은 안방에 붙여 축조하고 솥은 대소 2~3 개를 거는 것이 보통이다. 방앞에 퇴마루가 있을 때는 퇴마루쪽에 개수통(改水器, Sink)을 설치하고 그 위는 식기장 찬장 또는 선반을 맨다. 지방에 따라서는 안방에 부엌출입문을 두기도 하는데 이때는 안방의 뒷쪽에 두고, 다락에 오르내리는 계단을 중간 또는 한옆에 두고 한쪽 여닫이문을 단다. (그림 9 참조)

그림 8은 중부지방의 안채 평면도·부엌평면도와 입면도로서 안방의 □내의 번호는 밥상을 놓는순서로서 1번이 최상좌이고 차례로 하위 8·9위는 아녀자의 두리반·쟁반의 겸상 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 평면에서 대청에 시렁을 보쪽에 걸은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처마밑의 달쇠는 ●, 손잡이 끝은 ⊙로 표시 하였다.

그림 9는 부엌이 건물모퉁이에 둔 예로서 평안도지방 또는 경상도지방에서도 나타나는 배설법이다. 부엌위 다락에 오르는 계단을 부엌부뚜막위에 경사져 내밀게 하고



(그림 8) 중부지방·안방 부엌



(그림 9) 평안도지방 안방·부엌 평면도

있다. 여기에서는 부엌출입문을 안방에서 내게 됴므로 안방 아랫목 창가가 최상좌이고 순차 번호대로 하위로 자리 잡고 ⑧⑨번은 중부지방에서와 같이 아이 또는 여자들의 겸상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표시 한 것이다.

### 16·4 건너방

건너방은 대청옆에 1 칸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큰

집이 되면 2칸 건너방으로 한다. 1칸방의 앞에는 퇴마루가 달리지만 예전에는 대청마루보다 1단 높게(40~60cm) 꾸미고 그 밑은 함실 아궁이로 이용되며, 장작 기타의 들곳으로 쓰이였다.

2칸방의 건너방은 한칸 건너방의 앞에 1칸을 더 붙일때와 옆으로 붙일때가 있다. 한칸 건너방에서는 뒤나 옆에 벽장을 달지 아니할때가 많으나 2칸이상이 되면 뒷창문을 내거나 벽장을 달아붙인다. 2칸 건너방 앞에는 보통 반칸퇴를 내고 뒷문에는 좁은 퇴마루를 붙이는 것이 상례이다.

건너방은 안채에서는 가장 아늑하고 고적한 방으로서 신부를 맞이 할때나 귀한 안손님을 모실때에는 이방을 쓴다. 안방이 주되는 주부의방이라고 하면 건너방은 이에 버금가는 노모나 며느리방이 되기도 한다.

건너방에는 화사한 장농과 책상등이 간출하게 놓인다.

건너방과 대청마루사이에는 2 짝여닫이덧문안에 장짓문과 감창을 달지만 큰 잔치때에는 대청과 합쳐 쓸수 있게 4 짝 여닫이문을 들어올려 매달게 하고 안에는 4 짝 장짓문과 4 짝 감창문을 단다. 이 방법은 근래 도시 서민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응용될만하다.

건너방 앞 누마루는 머름 중방을 끼운 높이에 꾸미고 대청에서 1단 또는 2단의 계단을 두어 오르내리게 한다. 비교적 넓은 퇴마루에서는 난간을 돌리며 문을 달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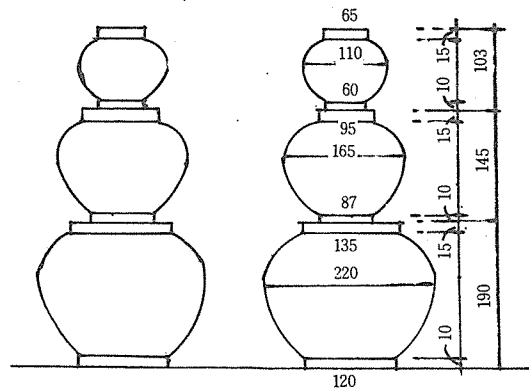
#### 16·5 살림살이의 풍습

칸반 또는 2칸의 안방의 구들고래는 나란하게 된다. 자리에 누울때는 대청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구들고래를가로 방향으로 자야 한다고 한다. 혼자 누울때라도 고래에 나란히 눕는것은 기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사온 첫날밤은 부엌을 향하여 자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알수가 없다.

안방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윗어른들은 큰문 정문으로 기타는 좁은문 또는 뒷문을 사용하는것이 상례이고 그림 8에서 부엌쪽에 있는 안방 좁은창으로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출입할 때는 어느 때라도 문지방(문턱)을 밟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 예이다.

그림 9의 평안도지방에서는 남자 외래객은 옷칸문으로 통하고 여자들은 아랫칸문을 사용하였다. 하인배나 마을 부인들의 출입은 안방뒷문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안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문은 남자 아이는 출입을 금지시켰다. 출입문의 높이가 5자(1.5m) 정도이고 보면 머리를 숙여 들어가고 나서 허리를 들어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인은 윗인방에 머리까기가 일수였다. 따라서 낯설은 외객이 갓을 쓰고 허리꿍으려 들어오다 다 들어온것으로 착각하고 허리와 고개를 들면 갓이 쭈그러지기도 하였다고 하니 옛 어른들의 올바르고 잔잔한 행동으로 예의를 삼고 매사에 경솔함이 없어야 했던 것을 알수 있다.

대청 쌀뒤주위에는 대소 항아리 3개를 상하로 두출 포개어 놓는다고 한다. 이것도 살림의 장식적 의도와 식량·씻앗의 귀중함과 훗날을 위하는 마음 간절한것을 표현한 장식방법이라고 본다.



(그림 10) 뒤주의 항아리약도

대문간은 부엌부뚜막에서 주걱으로 밥을 내푸는 방향에 두지 아니한다고 한다. 주부의 주의가 대문간에 쏠려서는 혹여 실수하는 일이라도 있을까 보아 하는 말인지 어쨌든 복이 나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두서없이 한국가옥의 주거생활을 살펴 보았으나 사랑방·뜰아랫방·등방(洞房)·별당·마당설비등 과거의 살림법을 알고 우리의 주택의 향방을 찾아서보다 복된 가정이 펼쳐지도록 다지는 바이다. ■